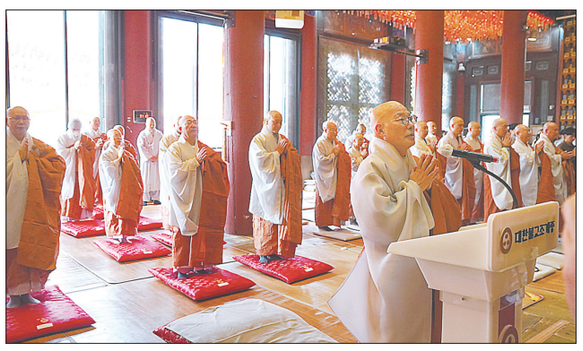
일원으로 하나된 조계종, 불교 중흥 염원

조계종, 4월 1일 삼원통합 고불식
200여 종무원 108배로 화합 발원
3월 31일 교역직 스님 인사 단행
포교부장 남전·교육부장 덕림 스님


조계종이 '삼원통합 고불식'으로 역사적 결음을 내디뎠다.



진우 스님이 24명의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삼원통합으로 하나된 종무원들은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대통합해 진실한 수행과 정진의 길을 열어 국민들과 불자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고 청년들에게 등불이 되는 미래 세대의 불교로 나아가겠습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삼원통합 고불식'을 봉행하고 조계종 삼원통합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고불식은 1994년 종단개혁의 성과로 출범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체제가 총무원 1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불교중흥 실현 의지를 부처님께 고하고자 마련됐다. 교역직 종무원 50명, 일반직 종무원 150명 등 200명이 동참했다.

고불식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헌향과 총무부장 성화 스님, 포교부장 남전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의 헌화에 이어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기획실장 법오 스님의 경과보고, 고불문 낭독, 108배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고불문에서 동참 대중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합해 미래불교를 밝힐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 변화와 불교 발전의 원력으로 종도들과 불자들에게 봉사하며 불법홍포에 공심으로 하나돼 보살행을 실천하고 사회에 회향해 불국토를 이루고자 한다"면서 "자비로 상생하고 지혜로써 화합해 전통의 가치를 오늘에 되살려 희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200여 종무원들은 함께 108배 하며 화합과 상생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 광명정대한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두루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조계종은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별원 조직 등에서 담당해왔던 포교, 출가진흥, 승가교육 및 복지 업무를 총무원이 직접 담당해 불교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법 포교 분야와 승려 교육 분야에 있어 일관되고 지속적인 종책 운영으로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만드는 데에 진력할 방침이다.

조계종은 조직개편과 함께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조계종연구소와 미디어홍보실을 신설했다. 조계종연구소는 종단의 기존 연구 조직을 통합한 종합 연구소로, 종단 종책 연구의 중추가 돼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신설됐다. 종책별, 분야별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종단 예산과 사업계획 수립의 바탕을 만들고 특히 포교와 승가교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책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교와 관련된 법령 개선책 등도 마련한다.

미디어홍보실은 한국불교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규모있게 생산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종단 대사회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종단 뉴미디어(유튜브, 인스타그램 채널 등) 운영, 미디어 홍보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영상·사진 등 불교 콘텐츠 관리, 불교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기 2569(2025)년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 신설된 미디어홍보실 실장 일규(덕안) 스님, 조계종연구소 소장 원철 스님 등 총 24명이 임명됐다.

성행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3연임

4월 1일, 116표 중 64표 얻어
원경 스님 33표·정덕 스님 15표
"동문 화합해 승가대 발전에 최선"



성행 스님〈사진〉이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3연임에 성공했다. 성행 스님은 4월 1일 김포 중앙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0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선거에서 116표 중 64표를 얻어 당선됐다. 성행 스님의 임기는 3년이다.

경쟁 후보였던 2번 원경 스님은 33표, 3번 정덕 스님은 15표를 기록했다. 선거인단 123명 중 116명이 참여했고, 무효표는 4표가 있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선거관리위원장 원소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받은 성행 스님은 먼저 선거가 과열된 점에 대해 대중에게 참회했다. 이어 스님은 "지난 임기 동안 코로나19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번 임기에는 그간 미진했던 과제들을 마무리하고, 동문회와 중앙승가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중앙승가대가 출가자와 입학생 급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와 법인, 동문들이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낼 때 현재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행 스님은 이번 임기 동안 △개운사 법적 문제 해결 △중앙승가대를 위한 승가육성 프로그램 개발 △동문 단합을 위한 성지순례 추진 △동문추천 중앙교역직 추진 △동문회 후원사찰 확보 △동문권익위원회 창설 △학교발전을 위한 총장 추천협의회 개설 △친선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주최 △본부장제 도입을 통한 교구본사별 소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구성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덕·원경 스님은 "선거인단에 집행부 8인이 포함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문제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장 원소 스님은 "총동문회장은 20여 년간 선거 없이 추대돼 왔다. 기존 운영 방식에 따라 집행부가 운영위원으로서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회칙이 엉성한 점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화합의 차원에서 그대로 진행하되, 앞으로 회칙 개정을 통해 선거인단 구성 방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대학교 불교동아리 성장·지속 방안은?

교수붓다회 1주년 기념행사서
김용진 교수, 활성화 방안 발표
회비 내는 회원으로 재정확충
경북대 등 8곳 우수사례 공유



대학생 전법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으로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 활성화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불교동아리 창립이라는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자생력과 지속성을 담보할 시스템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교 불교동아리가 한국불교 미래를 열어갈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향후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용진 경상국립대 '연화' 지도교수〈사진〉는 3월 29일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수붓다회 전법해 창립 1주년 기념행사-대학생 불교동아리 우수사례 발표회 및 컨설팅'에서 대학교 불교동아리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참여 활성화 및 재정 확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의 양적 성장은 눈에 띄지만, 불교동아리다운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학생 개개인의 불교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내실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회장만이 아닌 임원진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법회 일시의 다양화와 시험기간을 피한 행사 진행 △출석률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유명 사찰 순례, 셀럽 스님 초청 강연 등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모범적인 대내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회원 증가를 추구하고, 후원금 없이도 자체적인 순수 열정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재정 마련 역시 동아리 지속 운영의 필수 요소로 꼽혔다. 김 교수는 "동아리 회원의 학기별 회비 납부 체계를 도입해 실질적인 회원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도법사의 사찰 및 교구본사에서 후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주현우) △동국대 중앙동아리(정현도) △성균관대 불교동아리(자영우) △전남대 불교동아리(곽다훈) △경북대 불교학생회(김예진) △서정대 국제동아리(민단) △신한대 명상문화동아리(이건우) △봉은사대학생법회(정준우) 등 8개 불교동아리의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이들은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번개모임(당일 공지로 만나 차를 함께 마시는 프로그램), 감사챌린지(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온라인으로 공유), 법등모임(다도·영화·불교 교리 등 주제별 모임) 등 이색적인 활동을 공유했다. 또 불교동아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문 선배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순남 교수붓다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교수붓다회 전법해는 전국 17개 시·도 단위 교수 포교 및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단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도전법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3월 1일 창단한 교수붓다회 전법해는 교수들의 포교 활동과 불자 교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신행단체다. 현재 160여 명의 불자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교리학습, 수행, 성지순례 등을 통해 교수와 대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며 대학생 전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내영 기자



교수붓다회 전법해가 창립 1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20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일정 : 5월16일~5월25일
▶ 동참금 : 349만원

운남성 성지순례 8일
운남성의 곤명-대리-계족산-여강-샹그릴라 순례
출발일 : 5월10일~17일(6박8일)
▶ 동참금 : 249만원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정토마을 능행스님과 함께 떠나는 수미산 기도 순례
- 전 일정을 불교방송 BTN이 촬영해서 방영 예정입니다.
출발일정 : 5월29일~6월13일 (16일간)
▶ 동참금 : 590만원

중앙아시아 4개국 완전일주 13일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일정 : 6월03일~6월15일(11박13일)
▶ 동참금 : 629만원

티베트 순례 7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 등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6월28일~7월04일(7일간)
▶ 동참금 : 299만원

인도 라다크 헤미스 축제 8일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8일(8일간)
▶ 동참금 : 36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5일(5일간)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광우사)-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